

시설공단, 마포주민편익시설 홍보위해 현장 출동

2016-11-28 오후 4:00:54

마포타임즈 ✉ mapodesk@hanmail.net



(제공=마포구시설관리공단)

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5일 디지털 미디어시티역(DMC역) 8번, 9번 출구와 YTN 앞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마포주민편익시설 인지도 향상을 위한 현장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밝혔다. 상암동에 위치한 마포주민편익시설은 『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을 위해 2010년 2월에 개관했다.

마포주민편익시설에 등록하면 골프와 헬스를 연계한 프리미엄 피트니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, 토털 댄스로빅, S라인 필라테스, 30분 순환운동 등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다. 마포주민편익시설 관계자는 “무엇보다도 모든 회원이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”이라고 전했다.

0공유

<저작권자©마포타임즈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 2016-11-28 16:00 송고

<http://www.mapotimes.co.kr/news.aspx/364842>